

K리그1 파이널A 마지노선 '안갯속'

22라운드까지 3경기 남기고 6~11위 승점 4점차 점진 7위 광주를 윌리안 퇴장으로 최소 2경기 결정 '약재'

'6위 자리를 차지하라!'

말 그대로 살벌한 '승점 전쟁'이다. 19라운드까지 치러진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0에서 6위 강원FC(승점 21)부터 11위 수원 삼성(승점 17)까지 승점 차가 단 4점에 불과할 정도로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프로축구 K리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축소돼 K리그1과 K리그2 모두 27라운드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김천으로 연고지를 옮기는 상주 상무가 내년 K리그2로 자동 강등되는 상황에서 상주가 파이널A(1~6위) 진입을 확정하면서 순위 싸

움에도 변수가 생겼다.

상주의 파이널A 확정으로 올해 K리그1에서는 최하위 팀과 상주만 2부리그로 강등한다.

덕분에 올해 11위 팀은 K리그2 플레이오프(PO) 승자와의 포 탈리는 승강 PO 없이 내년에도 K리그1에서 뛠 수 있게 됐다.

이렇다 보니 중하위권 팀들은 저마다 '꼼짝 주락'의 위험이 없는 파이널A 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K리그1은 22라운드까지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1~6위 팀과 하위 7~12위 팀을 각각 파이널A와 파이널B로 나눠 각각 우승팀과 강등팀을 결정한다.

19라운드까지 펼쳐진 7일 현재 1위 울산 현대(승점 46), 2위 전북 현대(승점 41), 3위 상주(승점 34), 4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31) 등 4개 팀이 파이널A를 확정했다.

5위 대구FC(승점 26)가 파이널A의 안정권에 든 가운데 6위 강원부터 11위 수원까지 산술적으로는 모두 파이널A의 마지노선인 6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태다.

6~9위에 오른 강원, 광주, 성남, 서울 등 4개 팀은 승점 21로 동등이지만 득점과 골 득실로 순위가 갈린 상태인 데다 10위 부산 아이파크(승점 20)도 6~9위 팀들과 승점 1차다.

여기에 11위 수원도 부산과 승점 차가 3밖에 나지 않는 등 6~11위 팀들은 22라운드까지 3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한 경기만 빼듯해도 파이널A 진출의 꿈을 접어야 하는 실연음판

정국이다.

'파이널A 마지노선' 다름에 가장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은 '퇴장 약재'를 맞은 7위 광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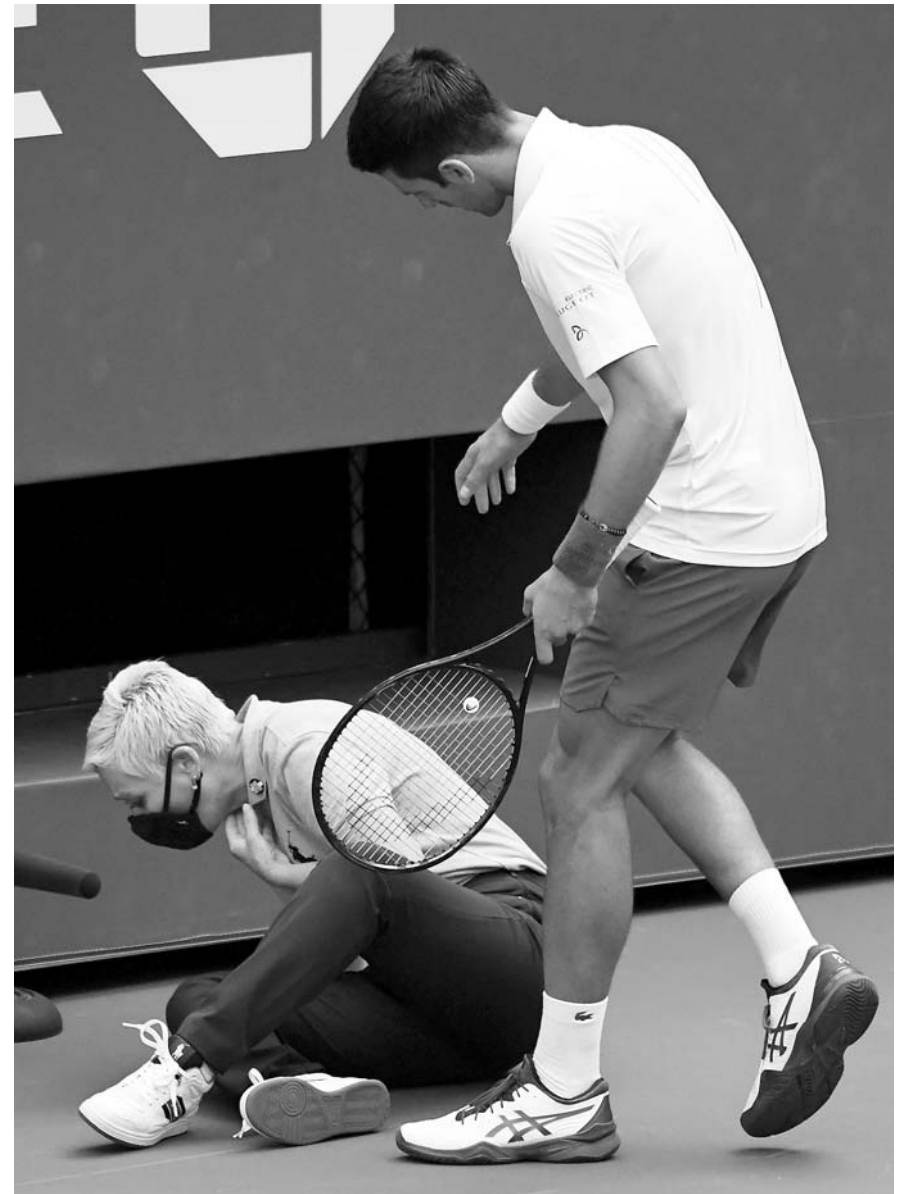
광주는 6일 치러진 울산과 19라운드에서 팀 공격의 핵심인 윌리안이 울산 김태환과 볼 다름을 벌이다 발길질을 하면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해 최소 21라운드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윌리안과 임원상이 좌우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윌리안의 공백은 치명적이다.

광주는 20라운드에서 2위 전북, 21라운드에서 3위 상주를 만나게 돼 '6위 싸움'에 가장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은 11위 수원, 12위 인천과 20~21라운드 대결을 앞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자신의 공에 맞은 선수에게 달려가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핫김에 공 쳤다가...

선심 목 강타... US오픈 충격의 실격패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킵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예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이래째 남자 단식 4회전(16강)에서 20번 시드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27위·스페인)와 맞붙었다.

그간 부스타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기록 중이던 조코비치는 잇따른 실수에 1세트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조코비치는 순간 흥분했는지 베이 스라인 뒤로 공을 쳐 보냈는데, 이게 선심의 목에 정통으로 맞고 말았다.

경기 중 중단됐고, 심판은 조코비치의 실격패를 선언했다. 조코비치가 한동안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코비치가 의도적으로 선심을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테니스에서 핫김에 친 공으로 심판 등 코트 내 경

기 진행 요원을 맞추는 행위는 실격 대상이다.

조코비치는 대회에서 탁발한 것은 물론, 중간 승리로 받은 상금을 벌금으로 반납해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 마녀 핏줄도 모두 무효 처리된다.

이로써 조코비치의 메이저 대회 우승 도전과 연속 행진이 모두 멈췄다.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통산 18번째 우승을 차지할 예정이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 1, 2위인 20회의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 19회의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과 격차를 좁힐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올해 전승 행진도 26경기에서 끊겼다. 지난해 경기까지 더하면 29연승에서 멈췄다.

한편 현재 대기표에 남은 선수 가운데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는 한명도 없다. 연합뉴스

임성재 3라운드 뒷걸음 투어 챔피언십 공동 6위

임성재(22)가 1500만 달러의 보너스가 걸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 최강전 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뒷걸음을 쳤다.

임성재는 7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세제날 경기에서 2오버파 72타로 부진했다.

중간합계 10인더파로 3라운드를 마친 임성재는 선두 더스틴 존슨(미국)에 9타차 뒤진 공동 6위로 밀려 최종일 역전은 쉽지 않아졌다.

바디 2개에 보기 4개가 말해주듯 잘 친 샷보다 실수가 더 잦았던 경기였다.

타샷 정확도가 64.3%에 그쳤고, 그린 적중률도 평소보다 20%가량 낮아진 55.6%에 불과할 만큼 샷이 좋지 않았다.

전날 데일리베스트 스코어 64타를 치며 선두 존슨에 1타차까지 따라붙어 기대를 모았던 임성재는 이날 존슨과 동반 플레이에서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완패를 당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순위는 여전히 10위 이내에 포진해 2007년 최경주(50)의 5위를 넘어 플레이어 한국인 최고 성적에 도전할 여지는 남겼다.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

연합뉴스

류현진·김광현·최지만 가을야구 '맑음'

올해 MLB 포스트시즌 16개 팀 출전... 소속 구단 리그 1~2위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이 올해 미국프로야구(MLB) 포스트시즌에 동반 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팀당 60경기만 치르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정규리그는 9월 28일(한국시간)에 끝난다. 각 팀은 대부분 40경기 정도를 치렀고, 이제 20경기만 더 하면 시즌을 마친다.

7일 현재 야구 통계 사이트와 스

포츠 전문 포털사이트는 한국인 세 선수 소속팀의 가을 잔치 출전을 높게 전망했다.

추신수(38)가 뛰는 텍사스 레인저스만 빼졌다. 텍사스는 13승 26패에 그쳐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올해 포스트시즌에는 리그별 8개 팀씩 모두 16개 팀이 출전한다. 예년의 10개 팀에서 6개 팀 늘었다.

현재 최지만의 소속팀인 탬파베이 가 지구 1위를 차지할 확률은 91~

97%대로 아주 높다.

또 류현진의 토론토는 양키스와 탬파베이에 이어 지구 2위를 다투고 있다. 토론토가 7일 양키스를 3위로 밀어내고 지구 단독 2위로 올라섰지만, 양키스가 2위에 오를 확률이 토론토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았다.

김광현의 팀으로 내셔널리그 중부 지구에 속한 리그 최고 명문 구단 세인트루이스는 7일 기준 리그 2위로, 포스트시즌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방송 프로그램 일정표 (KBS1, KBS2, MBC, JIBS/SBS, EBS1, 제주 CBS FM, KCTV 포함)

오늘의 운세 8월 (호수, 쥐, 토끼, 원숭이, 개, 돼지, 양, 닭, 멧돼지, 고양이, 물고기, 물뱀, 뱀, 악어, 새, 물소, 사슴, 호랑이, 곰, 여우, 표범, 표범, 호랑이, 곰, 여우, 표범, 호랑이, 곰, 여우, 표범)